

한전, 인도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MOU 체결

- 인도 원자력공사(NPCIL)와 상호 협력협정 체결
- 한국형원전(APR 1400) 건설 타당성 공동조사 등 양사간 협력체제 강화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8월 27일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원자력공사(사장 Dr. S. K. Jain)와 원전개발 및 운영 등 원전사업 상호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날 인도 원자력공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사간의 협력협정이 상호 원전 기술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인도 원전사업에 한국전력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쌍수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형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원전건설로 다져진 풍부한 경험과 기술,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인도 전력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협정 체결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거대 원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원전사업에 한국전력이 진출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도는 현재 17기의 원전(4,120MW)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20,000MW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부족한 전원을 보완하기 위해 PWR(pressurized-water reactor :가압 경수로) 25 ~ 30기를 수입할 예정이며, 예상시장규모가 약 40조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전시장의 하나이다.

앞으로 한국전력은 인도 원자력공사와 공동으로 한국형원전인 APR1400의 건설 타당성 및 경제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형 원전의 인도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이번 협력협정에 앞서 인도 원전사업 참여를 위해 '08년 8월 인도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GMR그룹과 MOU를 체결하였고, '09년 4월 인도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전의 원전 건설·운영 능력을 설명하는 등 인도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http://www.ewp.co.kr>)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진소수력발전소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지난 8월 7일 UNFCCC(UN기후변화협약)에 공식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당진소수력발전소는 당진화력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수로에 설치한 발전시설로써 국내에서 등록된 소수력 CDM 사업 중 단일 설비용량으로는 최대규모인 5MW이며 약 243억원의 건설비를 투입,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다.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10년부터는 연간 28,700MWh의 전력생산과 15,096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8년 연평균 가구당 전력소비량인 5,007kWh로 계산할 경우 약 5,7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현재 UNFCCC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1,760건으로, 당진소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가 등록한 29번째의 CDM사업이다.

동서발전은 2008년 6월 당진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승인을 완료하고, 2009년 5월 4주간의 CDM사업 집행위원회의 까다로운 등록심사를 거쳐 UNFCCC에 최종 CDM사업으로 등록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약 15만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서발전의 임한규 기술본부장은 "동서발전은 발전산업의 Leading Company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경영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발전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주)(이하 '남전', 사장 남호기)는 최근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불우아동을 돕기 위해 임직원 대상 결식아동 결연후원 캠페인을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어린이재단과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전개하였으며 남전 직원들의 모금액 및 회사 기부금 약 6,528만원(명칭 '파랑새 기금')과 헌혈증 200매를 8월 15일,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동서발전, 국내최대 소수력 발전 CDM사업 UN등록



남부발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결식아동 후원

LS산전, 국내업체 처음으로 일본 태양광발전시스템시장 열었다

LS산전(대표구자균) 스마트그리드사업과 전기차전장품사업이 잇따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어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에서도 국내업체 처음으로 대규모로 일본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LS산전 그린비즈니스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LS산전은 최근 일본 사닉스(SANIX)사와 연간 최소 15MW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가정 5천세대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약 600억원 상당에 이르며 지난해 LS산전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매출의 약 1.6 배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이번 계약으로 LS산전은 9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일본 사닉스사에 공급하게 된다.

사닉스사는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위생사업 및 환경폐기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연간 3천 4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사닉스사 무네야마 신이치(宗政伸一) 사장 일행이 LS산전 천안공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제품품질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후 성사된 것이다.

정주환 LS산전 신재생에너지 BU장은 “일본 태양광발전시스템시장은 그동안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산요(SANYO), 교세라(KYOCERA) 등 현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품질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국내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어려웠다”라며 “LS산전은 태양광모듈의 효율 및 품질을 인정받았음은 물론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한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해외진출의 장을 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계약규모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으며 사닉스사의 예상대로 연간 1만세대 이상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최대 매출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은 1986년 국내 최초로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는 태양광모듈을 국내처음으로 국산화하여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태양광에

너지 '건물일체형기술(BIPV)'로 연구개발 특허를 획득한데 이어 2008년 초 단결정 셀을 적용한 모듈중 국내최고 효율인 14.6%를 자랑하는 180W 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편, LS산전은 지난 3월 그린비즈니스분야에 오는 2012년까지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그린비즈니스 매출을 2012년 7천억원, 2015년 2조 1천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그린비즈니스 전략 및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전체 매출의 약 10% 수준인 그린비즈니스 매출을 2012년 전체 매출의 24%, 2015년 전체 매출의 47%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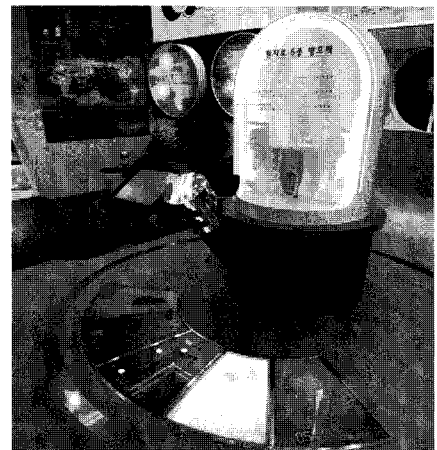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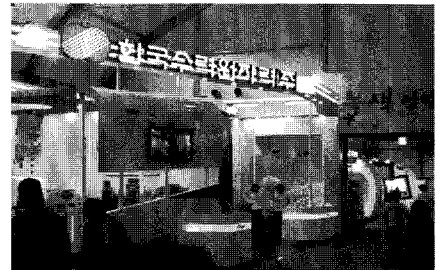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월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원 부지 24만 7000㎡에서 개막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녹색성장관 내에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원자력에너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한수원이 설치한 홍보부스에는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전시물을 비롯해 원자력에너지의 장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등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시연하는 멀티비전과 더불어 관람객들이 원자력발전 원리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모형물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부스가 마련된 녹색성장관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 홍보부스가 자리잡아 녹색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미래 에너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도시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행사인 인천세계도시축전은 '80일간의 미래 도시 여행'라는 주제 아래 10월 25일까지 열리게 된다. 105개 해외 도시와 32개의 국내 도시, 그리고 1,50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해 60여개의 이벤트와 전시, 공연 등이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http://incheonfair.org>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세계도시축전에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열어



현대중, '올해의 송전설비 기업' 상 수상

- 美 프로스트앤설리번 주최, 2009 아·태 산업기술 시상식서
- AREVA, ABB 등 이어 수상, 해외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

현대중공업이 美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으로부터 '올해의 송전설비 기업'에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200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올해의 송전설비 기업상(Power Transmission Equipment Company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 중 점유율과 성장세, 리더십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우수 기업들을 선정, 발표해 왔다.

현대중공업은 「에너지 및 전력 시스템(Energy & Power System)」 분야의 20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중공업에 앞서 AREVA(2007년)와 ABB(2008년)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송전 설비와 각종 중전기기를 제작,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변압기 생산 누계 50만MVA를 달성하고, 단일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 MVA 생산 체제를 갖추는 등 송전 설비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마켓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9년 중전기 분야에서 2008년 대비 각각 15%, 46% 늘어난 수주 26억 2,500만불, 매출 2조 8,1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1조 3,770억원 매출과 15억 4,900만불의 수주를 달성했다.

